

맥주도 '손맛'이 대세

획일화 탈피 개성 강한 수제맥주 열풍...광주 판매점 증가 10년내 2조원대 시장 전망...20~30대 창업 아이템 각광

#1. 청년 이종선(27)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무등시장에 수제버거와 수제맥주를 창업아이템으로 '레벨버거'(level burger)를 열었다. 당시 광주지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동강 페일에일'과 '이볼트윈 모던 IPA' 등 10여종의 수제맥주를 선보이며 젊은층 고객확보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치맥'(치킨+맥주)에 이어 '버맥'(버거+맥주)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성업을 이어가고 있다.

#2. 지난 13일 정식 오픈한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평양냉면 전문점 '광주옥'에서는 독특하게 수제맥주를 팔고 있다. 이 북음식인 평양냉면에 주메뉴라는 점에 컨셉을 맞춰 북한지명이 붙은 '대동강 페일에일'을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다. 중년층 손님들도 처음엔 익숙지 않은 맥주이름에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했지만 이제는 주력메뉴 중 하나로 자리를 굳혔다.

'수제맥주' 열풍이 불고 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최근 광주에서 수제맥주를 판매하는 전문점과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

15일 광주지역 요식·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의 맥주를 수입해 팔던 '세계맥주전문점' 등의 인기가 시들해진 대신, 수제맥주전문점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수제맥주가 주목받는 창업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1913광주송정역의 '밀밭양조장'은 고창의 한 브루어리(양조장)에서 생산한 수제맥주를 판매하고 있고, 수제맥주전문점 '더딤'의 경우 광주시 남구·광산구·서구 일대에

속속 가맹점을 확장하는 추세다. 광주지역 최초로 다양한 맥주를 파는 바틀샵(Bottle Shop)인 동구 동명동 '맥바틀샵'에서는 수입맥주는 물론, 국내의 수제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그만큼 수제맥주에 대한 지역 내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수제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점차 인기가 높아지자 야에 양조 시설을 갖춘 곳도 생겼다. 지난 2014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직접 막걸리나 맥주 등 주류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동구 동명동 '에프터웍스'는 지난 9월 국제정으로부터 양조허가를 받고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밀로 만든 '광산바이젠', '무등산 필스너', '영산갈 톨켈', '동명ESA'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수제맥주를 생산·판매 중이다.

이처럼 개성이 뚜렷한 다양한 품목의 수제맥주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중요한 창업시장에서 유망 받는 아이템이 됐다.

기존 한정된 종류의 맥주만 마셔오다가 맛과 향이 다양한 수입맥주가 유통되면서 다양한 취향들이 생기게 됐고,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들어 개성이 뚜렷하고 품질까지 뛰어난 수제맥주가 등장하자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200억원 안팎의 국내 수제맥주 시장도 10년 뒤엔 2조 원대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시장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박기웅기자 pboxer@

광주·전남 실업자 1만1000명 줄었다

10월 고용률 광주 전년대비 2% ↑·전남 1.1% ↓...공공 서비스 고용 늘어

10월 광주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전남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0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9.3%로 전년 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5000명(2.0%) 증가했다.

산업별로 광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4.2%)은 증가하고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8만6000명으로 2만4000명(5.2%), 일용근로자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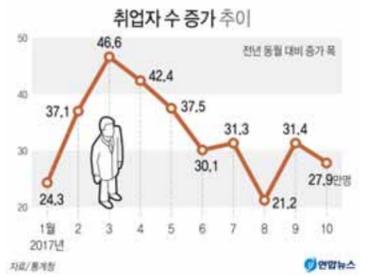
만4000명으로 8000명(15.6%)이 증가했으며 임시근로자는 14만7000명으로 3000명(-2.1%) 감소했다.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월대비 0.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명으로 4000명(-15.1%)이 감소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62.6%로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94만4000명으로 1만명(-1.1%)이 감소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증가했으나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건설업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3만



1000명으로 9000명(2.7%), 일용근로자는 5만8000명으로 8000명(17.1%)이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6만2000명으로 1만7000명(-9.5%)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7000명(-23.2%) 이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순천세무서 '문화 나눔'

청사에 활용 지역 화가 작품 전시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서장 손도중)는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유망 화가에게 작품 전시 기회와 창작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민들에게는 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실천하고 있다.

순천세무서는 지난 14일부터 순천에서 활동중인 한임수 작가의 '순천만 갯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3층 대회의실과 1층 현관 등 청사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민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소통의 의미를 높이고 있다.

한임수 작가는 순천만의 넓은 지평에 붉은 칠면조가 펼쳐진 풍경을 즐겨 그리고 있다. 작가는 과학적이고 자연주의적안목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해석할 필요가 없는, 율리엄 터너와 마



크 로드코가 느꼈던 빛, 열정적이고 서정적인 빛을 순천만 갯벌로 작품화 했다.

한편 순천세무서는 일손부족 농가 돕기, 저소득·무의탁 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밥 퍼' 행사와 순천세무서 세정협위회와 함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순천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효성, 데님 적용 'X-play 스트레치 콜렉션' 공개

佛 '데님 프레미에르 비종' 전시회 참가

효성은 유명 데님 원단업체인 터키의 보사(Bossa)와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데님 프레미에르 비종'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최신 데님 스타일과 우수 소재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효성은 데님용 신축성 섬유인 크레오라 핏 스퀘어를 적용한 'X-play 스트레치 콜렉션'을 선보였다.

크레오라 핏 스퀘어를 사용한 데님은 가로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기존 데님과 달리 가로와 세로 방향 모두 늘어나 착용자의 체형을 자연스럽게 돋보

이게 하고 높은 활동성과 편안함을 준다고 효성은 설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보사와의 협업은 유럽 프리미엄 데님 시장 공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터키는 연간 의류 수출의 3분의 2를 유럽연합(EU)으로 하고 있으며 보사는 작년 한 해 약 53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 터키 최고의 데님 원단업체다. 효성은 지난 8~9일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데님 엑스포에 참가하는 등 프리미엄 데님 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8.25 (-8.39)

↓ 금리 (국고채 3년) 2.18% (-0.03)

↑ 코스닥 768.03 (+11.57)

↓ 환율 (USD) 1112.30원 (-5.80)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